

## 진화론과 문학: 은유, 서사, 마음의 재발견

오철우\*

과학이 문학에 끼친 영향은 비교적 친숙한 주제로서 이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가운데에서 다윈 진화론이 문학에 끼친 영향은 19세기 역사와 두 문화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되어 왔다. 이 글은 기존의 주요한 연구 흐름을 정리하며 19세기 영국과 근대 한국의 계몽문학에 나타난 다윈 진화론의 영향을,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또한 진화론이 문학뿐 아니라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꾸어놓았다는 점에서, 문학 행위 자체를 마음 진화의 소산으로 바라보는 진화심리학의 문학비평 관점을 함께 살핀다. 특히 이 글은 진화론의 영향과 연관된 시와 소설의 변화가 사회와 개인이 처한 상황과 종교적, 사회적 믿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자연, 인간, 진화의 재발견을 통한 서사, 은유, 마음의 재인식이 문학 격동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주제어: 다윈 진화론, 과학과 문학, 은유, 서사, 진화심리학

사람과 원숭이가 오래 전에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 진화했기에 사실은

\*서울대 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전자메일: cheolwoo@hani.co.kr

사촌지간의 생물종이라는 것, 그런 진화는 인간의 의지나 신의 설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 우연히 생기는 종의 변이들 중에서 환경에 적응한 적자만이 생존하는 잔혹한 자연선택에 따라 진화가 이어져왔다는 것, 그런 진화는 어떤 도약이나 기적도 없이 매우 장구한 시간에 걸쳐 작은 변이들이 점진적으로 쌓이면서 일어났다는 것, 현재의 종들은 역사의 산물이며 역사를 통해서만 그 존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진화론의 설명이다. 찰스 다윈(1809-1882)이 관찰하고 통찰한 이런 진화이론의 뼈대들은 당대 과학계는 물론이고 종교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19세기 후반에 영국사회 각 영역에 크고 작은 영향을 남겼다.

시간과 변화, 역사, 그리고 인간과 생물종을 자연의 법칙과 물질적 메커니즘의 관점으로 해석한 다윈의 진화이론은 19세기 후반에 시와 소설의 모습을 이전과 다른 것으로 바꾸어놓았다. 물론 다윈 진화론만이 19세기 문학이 맞이한 도전을 조성한 것도 아니었으며, 문학이 다윈 진화론의 영향만을 받아 20세기 문학으로 향하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도 아니었다. 진화의 관념만을 따지더라도, 시와 소설은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진화의 은유와 유희를 문학에 담아 통찰과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과학계에서도 이미 당대의 지질학과 천문학은 지금의 지질이나 천체들이 늘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장구한 시간에 걸쳐 생긴 누적적 변화의 산물이며 자연계에도 인간사처럼 돌이킬 수 없이 나아가는 시간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관념에 눈을 뜨고 있었다. 어찌 보면, 다윈의 충격은 이처럼 천문학과 지질학 같은 분야에서 성숙하고 있던 물질의 변화와 역사에 관한 관념을 생물계의 역사에 철저하게 적용했다는 데에 있었으며, 그럼으로써 다윈은 다른 과학의 충격과 더불어 인간과 신, 생물계에 대한 전통의 인식을 송두리째 흔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므로 당대 문학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진화론 외에 당대의 다른 과학 분야들이 끼친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 눈을 더 넓히면 신흥부르주아지라는 계급의 성장과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낸 19세기 산업화와 기계화, 도시화라는 사회적 배경까지 아울러 봐야 한다. 이 글은 다윈 진화론과 문학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살피고자

하지만, 문학의 변화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격변의 시기에 대개 그렇듯이, 19세기 문학의 격변기에는 시와 소설의 전통 양식에 대한 근본적 물음들이 자주 등장했다. 시와 소설이란 대체 무엇인가? 또 시인과 소설가는 누구인가? 그리고 훌륭한 시와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떤 시인이 진정한 시성(詩聖)인가? 여러 문학 담론과 논쟁이 19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 문인들 사이에서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 (Bristow ed. 1987, "Introduction": 12-21). 과학은 이런 담론을 만들어낸 여러 계기들 중에서 중요한 하나였다. "19세기 문학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과학의 개입일 것이다" (Stevenson 1932: 1).

천문학, 지질학, 고생물학을 비롯해 과학 전반이 문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지만 (Chapple 1986), 그동안 진화론과 19세기 시와 소설의 변화가 여러 연구서들의 독립적 주제로 다루어져 왔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Stevenson 1932; Levine 1988; Beer 2000) 과학 중에서도 진화론이 끼친 영향은 훨씬 각별하고도 컸다. 근래에 들어 국내에서도 진화론이 자연과학에 못잖게 철학과 심리학, 언어, 문학 등 인문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음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장대익 2009; 김용현 2012), 이 글도 그런 흐름에 서서 문학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연구 사례들을 제공하기 위해 씌어졌다. 여기에서는 지금에 와서 보면 매우 이질적인 두 영역인 진화론과 문학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진화론의 어떤 요소들이 문학 행위와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19세기 후반 영국 시와 소설, 근대 한국 계몽문학에 나타난 몇몇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에 진화론은 시와 소설의 은유와 서사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었으며 시인과 소설작가의 말하기 태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아울러 진화론과 문학의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틀로서 제시되는 진화심리학 또는 진화문화비평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간략히 되돌아봄으로써, 진화론과 문학이라는 두 문화 사이의 연구에서 왜 서사, 은유, 마음이 큰 관심사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 19세기 시인, 낭만적 예지자의 시대를 지나다

19세기 영국 문예비평계에서 시인의 지위는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시인은 전통적으로 “지혜와 통찰을 지닌 예지자” 정도로 통했다. 토머스 칼라일은 1840년에 쓴 ‘시인 영웅’이라는 글(“The Hero as Poet: Dante, Shakespeare”)에서 시인과 예지자는 본래 라틴어 ‘바테스(Vates)’라는 하나의 말로 불렸다고 전했다 (Bristow ed. 1987: 66). 바테스는 모두에게 열려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이른바 “열린 비밀”과 “신적 신비”를 꿰뚫어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시인도 역시 이런 예지자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시인은 자연과 교감하며 진리를 꿰뚫어 보는 진리의 전달자였다. 하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좇는 공리주의와 더불어 과학적 지식의 가치가 날로 강조되면서, 낭만주의는 퇴조했다. 일부 문예비평에서는 낭만주의 시들에 나타나는 시어가 정확한 은유이며 표현인지를 두고서 감정과 은유, 상상에 관한 시학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과학과 소설의 산문은 시의 운문을 압박했다. 산업화, 기계화의 사회에서 시인은 진리를 소리 내어 노래하는 낭만적 예지자에서 사실을 관찰하고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독백자의 모습으로 변모해갔다.

시인이 진화의 관념을 시에 담아 노래한 일은 다윈 진화론 이전에도 자주 있었다. 오히려 낭만주의에서 자연은 살아 움직이며 생로병사를 겪는 유기체처럼 이해되는 일이 잦았다. 다윈 진화론의 등장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그것은 시인이 노래하던 자연에 이제는 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이었다. 낭만주의 시대에 자연 만물을 신의 설계 작품으로 바라보는 자연신학은 이제 자연선택설의 위협에 직면했다. 다윈의 진화론은 전통적인 시적 영감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신비와 낭만이 사라진 현실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차 없는 생존 투쟁,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만들어졌다가 결국에 헛되이 파괴된다는 ‘헛된 풍요’의 현실은 그때까지 자연을 노래하는 모든 시에서 나타나던 ‘자비에 대한 믿음’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신이 전능과 자비를 다 지니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게 됐다. 전능과 자비 가운데 하나는 버려야 했다.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그저 존재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거대한 기계로 비쳐지게 될 뿐이었다” (Stevenson 1932: 45, 따옴표는 필자 강조).

진화론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인들마다 달랐다. 그 가운데에서도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계관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슨(1809-1892)의 존재는 특별하다. “과학의 시인”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테니슨은 앞 세대의 낭만주의 계관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1770-1850)와는 다르게 자연을 바라보았다. 당대의 영국 철학자 헨리 시지위크는 워즈워스가 자연을 종교적, 공감적 직관으로 바라봤다면, 테니슨의 자연은 물리적 세계이며 그것은 “자연의 과학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세계”라고 말했다 (Hallam Tennyson ed. 1911: 280). 그는 천문학과 지질학을 비롯해 당대 최신의 과학 지식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과학인들과 교류했으며, 1865년에는 과학인들의 권위 있는 단체인 왕립학회(Royal Society)의 정식 회원이 됐다. 과학저널 《네이처》의 창간인이자 천문학자였던 노먼 로키어(1836-1920)는 테니슨을 두고 “당대에 이뤄진 (과학의) 발견들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했으며” “자연세계의 어느 것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다루지 않았[던 시인]” “뇌와 심장에 동시에 호소하는” 시를 쓸 줄 아는 시인이라고 높게 평가기도 했다 (Lockyer & Lockyer 1910: 3, 5-6).

테니슨은 젊은 시절에 과학 지식을 공부했고 창작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당대 과학 지식에 결코 뒤처지지 않았기에, 다윈 진화론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진화의 사상에 친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종의 기원』 출간 이전에 이미 다윈에 큰 영향을 끼친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 저작을 비롯해 진화에 관한 서적들을 읽었으며, 자연과 인간사가 모두 기나긴 시간을 거치며 변한다는 관점을 여러 시에 강조해 남겼다. 자연이건 사회건 제도이건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였다. 특히 테니슨한테 그런 변화는 좀 더 높은 곳으로, 더욱 더 현명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것이었고 ‘영혼의 불멸과 진보’에 대한 그의 믿음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아무 것도 사멸하지는 않으리  
그래도 만물은 변하네  
영원토록 . . . . .  
지금 세상은 과거에 만들어진 그것이 아니니  
변화하리라, 허나 쇠퇴하지는 않으면서 . . . . . 등등  
(「아무 것도 사멸하지는 않으리(Nothing Will Die)」, 1830)

“자연 만물은 넓어지며 높아지네. 영원히  
단순하면 그 본질은 그만큼 더 낮은 곳에 임하는 법.  
복잡해지면 그만큼 완벽해진다네. 더 많은 교류를  
만들어내며 더 넓게 더 지혜로워진다네.“  
(「예술의 궁전(The Palace of Art)」, 1833)

하지만 테니슨이 바라본 자연은 자비로운 깨우침을 전하며 시인과 교감을 나누는 위즈워스 식의 낭만적 자연이 아니었다. 과학 지식이 발전할수록 자연은 거대한 거친 힘을 드러내며 엄습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드러났다. 그가 “불계 물든 이빨과 발톱을 드러낸” 악몽 같은 자연을 노래하고, 인간 내면의 “원숭이와 호랑이”를 이야기했을 때에 자연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다 (Irvine 1959: 620).

1859년 다윈의 진화론이 영혼의 진보를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무차별적인 자연의 생존투쟁을 법칙으로 제시하자, 테니슨의 마음은 현실의 진화이론에서 더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당대 사회에서 종교와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신앙과 과학의 화해를 모색했던 ‘형이상학회(Metaphysical Society, 1869-1880) 모임에도 참여했으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에 심취했다. 만년에 이르러 그는 진화에

대한 다윈 식의 유물론적 해석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윈의 세계는 잔혹했으며 인간의 영혼이 진보한다는 믿음을 주지도 못했다. 하지만 진화론이 영혼의 진화와 진보를 믿었던 그의 범신론적 믿음을 꺾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종의 기원』의 출간을 기다리며 예약 주문까지 했고, 과학의 시인으로서 낭만주의적인 신의 관념에서 벗어나려 했던 그였지만, 그는 당대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과학과 신학 논쟁에 애써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유물론적 진화론으로 입은 영혼의 상처를 범신론으로 위로하고자 했던 대표 시인 테니슨의 길이 당대 시인들 대부분이 걸었던 길은 아니었다. 다른 대표적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1882-1889)은 과학과 신학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지 않은 채 불완전에서 완전히 발전하는 인간 진화에 대한 믿음과 신의 사랑을 낙천적 목소리로 노래했다. 반면에 다른 시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1809-1883)는 세상사에 대한 환멸을 드러냈다. 문화비평가이자 시인인 매슈 아널드(1822-1888)는 인간 영혼을 보호받지 못하는 신앙 상실의 시대에 그 운명에 순종해야 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에 대한 인간의 자조 노력을 노래했다 (Stevenson 1932: 46). 자연은 신을 추방했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특별히 여기지도 않는 것이기에, 인간에게는 그저 자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인내와 자신의 나약함을 이겨내려는 자조의 노력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자연은 평정의 마음을 지니고서

뛰노는 자연의 자식들을 모두 바라본다,

인간은 바람을 다스리려 하지만

자연은 그런 인간을 휩쓸어버리는 바람을 바라만 볼 뿐이네.

돛배의 의기양양한 항해를 지켜보지만 돛배의 침몰도 그저 지켜보지.

(「엠펜도클레스 온 에트나(Empedocles on Etna)」, 1852)

진화론과 과학 지식의 진전을 목격하면서 신을 대신해 인간한테서 새로운 능력을 발견했던 시인들도 있었다. 자연과 신을 향하던 경외와 예찬의 눈길은 이제 자연에서 스스로 법칙을 찾아낼 수 있게 된 인간의 이성을 향했다. 인간은 ‘자연을 가장 지고하게 현시하는 존재’로 부각되었으며, 인간 개체는 유한하고 한계를 지니지만 인간 종은 위대한 존재로 부각되었다. 신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총합”이었다. 당시에 실증주의와 같은 말로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인문종교(religion of humanity)”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은 잃어버린 복음주의 신앙을 대신하는 새로운 신앙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리라.

앨저넌 찰스 스윈번(1837-1909)이 그런 시인이었다. 그는 인간이 신을 창조하고도 자신을 신의 세계에 흡수하는 미혹을 보였으나 이제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됐음을 의기양양하게 노래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 있으라! 인간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이기에!”

사람들은 죽게 마련이지만, 인류는 지속하리라. 사람의 수명은 다하지만 인류의 생명은 다하지 않으리.

인류는 계절 변화의 비밀을 보았네, 세월이 생겨나는 뿌리와 그 과실을 보았네.

인류의 영혼은 그 뿌리들에 활력을 주는 만물의 이치와도 일치하네.

인류는 만물의 변화 속에서 공명하는 영역을 자각하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네.

인류는 자신을 휘돌아 흐르는 세월을 통해 밑바닥에 놓인 법칙을 바라보네.

(「인간예찬(Hymn of Man)」, 1871)

스윈번의 시 「헤르타(Hertha)」(1869)에서, 생명을 길러주는 “어머니 지구”인 1인칭 화자 헤르타는 만물을 포용하며 주관과 객관의 모든 모순들을 자기 안에서



화해시키는 권능자이며, 저 심연의 바닥부터 인간까지 모든 생명을 길러내는 존재로 그려졌다. 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여러 신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존재이다. “나는 시작을 행하는 존재 / 시간이 내게서 생겨났네 / 내게서 신과 인간이 생겨났네 / 나는 한결같음과 전체 / 신은 변하고 인간도 변하니 육신과 같지. 허나 나는 영혼이라네”. 스윈번은 “토머스 헉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다윈 식의 리얼리즘 그리고 또 다른 리얼리즘을 동원해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의 체면(decencies)을 깨려고 했던” 시인이었다 (Irvine 1959: 624).

19세기 말에 이르러 다윈 진화론 이후에 시의 세계에 나타난 떠들썩함은 찾아들기 시작했다. 19세기 영국 시를 연구한 스티븐슨은 “시적 사상과 당대에 발전한 다른 영역 사이에 이뤄진 연계를 이보다 더 흥미롭게 보여주는 예는 다른 어느 시대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Stevenson 1932: 54). 진화론에 대한 열정과 냉정의 시대가 점차 수그러들자, 새 세대 시인들은 이제 한동안 잊혀 있던 다른 시의 주제들로 되돌아갔다. 이들은 다윈의 진화론에 얽매이지도 않았지만 전통의 시 세계로 되돌아가지도 않았다. “시의 정원을 새롭게 가꾸는 일”이 그들한테 남겨졌다.

## 19세기 소설가, 서사와 플롯의 변화를 실험하다

다윈 진화론이 문학에 끼친 영향에 주목한 학자들은 19세기 후반 영국 소설의 서사 구조, 등장인물과 사건 묘사 등에 나타난 새로운 흐름에 다윈 진화론이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소설의 서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원화했으며 일직선의 전통적 플롯은 흐트러졌고 우연히 출현한 사건과 등장인물의 적응에 관한 세밀한 묘사, 그리고 얽히고설킨 사건과 등장인물의 이야기 전개는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서로 다른 스타일로 진화론에 밝았던 조지 엘리엇(1819-1880)과 토머스 하디(1840-1928) 같은 당대 대표 작가의 작품은 리얼리즘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그것들은 다윈 진화론의 서사와 비교될 만한 여지를 남겼다.

19세 후반 영국 소설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무엇보다도 작가의 말하기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 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지적되었다 (Levine 1988; Beer 2000; Chapple 1986). 이전까지 작가는 소설이라는 이야기 세계 안에서 전지전능한 존재였다. 이야기 세계에서 작가는 플롯을 이끌고 등장인물과 사건을 배치하는 전지전능의 이야기꾼이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의 자연계에서 섭리를 행하는 신이 전지전능의 존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작가는 흡사 신과 비슷한 지위를 누리는데도덕적 판단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소설작가들한테서 새로운 태도가 나타났다. 작가는 자신이 풀어놓는 이야기 세계에 드러내놓고 개입하지 않으며 마치 이야기 밖에서 그저 관찰하며 묘사하는 듯한 존재로 남고자 했다.

이런 소설의 말하기 태도는 다윈 진화론의 말하기 태도와 비교될 만한 것이었다. 다윈 진화론은 세상의 섭리가 신의 목적을 좇아 움직인다고 보는 이른바 목적론을 철저하게 배격했다. 이런 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진화가 신의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믿었던 자연신학적 진화론과 다윈 진화론은 뚜렷이 구분된다. 다윈 진화론의 세계에서는 신은 물론이고 인간의 의지마저 추방되고 무심한 변이와 적응, 생존투쟁과 자연선택으로 가득한 황량하고도 가차 없는 기계적 물질주의의 세계만이 남았다. 자연을 바라보는 다윈주의자는 더 이상 신의 섭리를 말하지 않으며, 의지나 윤리, 도덕을 배제하고 무심한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보이는 바 그대로 서술할 뿐이다. 그것이 다윈주의가 말하는 태도였으며 과학의 말하기 태도였다.

이와 관련해 영문학자 비어는 19세기 소설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언어와 물리적 질서의 적합성은 목적론 문제와 명백하게 관련이 있다. 이야기 구조가 미리 계획된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시대 소설가들은 점차 설계자나 신이 아니라 관찰자나 실험자 자격으로 작품의 언어 안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고자 했다. 전지(全知)는 사라졌고, 전능(全能)은 자취를 감추었다” (비어 2008: 120). 비슷한 관점을 다른 학자 레빈도 내놓았다. “19세기 리얼리즘 서사에서 관찰은 이야기 재료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관찰자와 관찰 행위는 점점 더 관심을 끄는 수단이자 그 중심이 되어갔다”(Levine 1988: 15).

이 시기에 서구 전통적 서사의 기초가 무너지고 새로운 리얼리즘이 출현하고 있었다는 레빈의 말은 그런 변화를 간명하고 명쾌하게 요약한 지적처럼 들린다. 자연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자연은 신의 작품이라고 믿었던 자연신학의 설계론이나 목적론은 없었다. 당대의 리얼리즘 소설이 펼친 서사는 갖가지 변이의 우연한 출현 속에서 적응하는 적자의 자연선택에 의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다윈 식의 진화론 서사와 닮은꼴을 이루고 있었다.

비어에 따르면, 관찰과 실험의 정신은 과학의 영역뿐 아니라 당대 소설 작품에서도 은연중에 강조됐다. 관찰과 실험은 진정한 지식인지 평가름하는 과학의 지식 입증 방법이었으나, 이 시기의 새로운 문학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들에서도 관찰의 태도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또한 말하기의 새로운 태도였다. 오래 전에 작가는 전지전능자나 숭고한 도덕적 판단자로서 이야기꾼의 지위를 자처함으로써 권위를 얻었으나, 이제는 마치 작가의 의지와 동떨어진 채 전개되는 듯한 세계를 묘사하는 무심한 관찰자로서 자신의 보이지 않는 권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렇게 과학자처럼 말하기를 모방함으로써, 작가들은 소설을 훨씬 더 객관적인 것, 더 과학적인 것으로 보이게, 그리하여 훨씬 더 그럴듯함을 강화하는 리얼리즘을 구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영국 지방도시의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중 플롯의 기법으로 전개한 엘리엇의 대표작 『미들마치』(1871~1872)에 대한 비어의 비평을 들으면, 19세기 소설에 나타난 변화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조지 엘리엇이 『미들마치』에서 추측을 억제하며 추측에 내재하는 최종 결론을 향한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구사하는 방법의 하나는 병치 (to set alongside)이다. 이것은 곧 인과관계만이 아니라 방계적 관계도 강조하는 방법이다. 그녀는 해결을 향한 움직임을 중단하기 위해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않은 인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과 감정의 친화성을 계속 밝혀나간다. 그렇게 발견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과

인물의 질서 속에 존재하는 폭넓은 다양성이 드러난다”(비어 2008: 334-335. 인용의 첫 문장은 Beer 2000: 151-152를 다시 번역한 것). 문학은 단지 과학을 새로운 이야기 소재로 삼는 데에서 더 나아가 과학의 탐구 방식에도 관심을 나타냈으며 때로는 과학과 공유되는 담론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Chapple 1986: 18).

진화론의 서사가 소설 작품에 남긴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먼저 진화론의 핵심 관념으로 꼽히는 변화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각성은 소설 작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다윈 진화론에서는 장구한 누적으로 발현하는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만 현재가 이해되며, 종은 변이를 통해 다른 종으로 바뀌거나 멸종할 수 있지만 진화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진다. 서구 전통의 인식론에서 자주 변하는 것은 실재가 아니며 이상도 아니었지만, 다윈한테서 변하는 변치 않을 실재였다. “다윈은 모든 것들을 시간에 종속시켜 자연은 영원하다는 이상적 토대에 도전했으며 영원한 사유의 범주라는 이상에 도전했다”(Levine 1959: 16-17). 마찬가지로 소설 속 인물들의 정체는 족보와 가문의 역사에 대한 묘사를 통해 드러났다. 변화하는 등장인물들은 “대리석처럼 조각돼” 고정되는 게 아니라 “플롯에 복잡하게 얽혀”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그려졌다.

다윈 진화론의 다른 주요 개념인 우연도 19세기 리얼리즘을 풀어내는 이야기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우연이 진화의 자연법칙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법칙의 밑바탕을 이루는 자연 현상으로 이해되었듯이, 소설에서도 우연은 더 이상 잘 짜인 플롯이라면 배제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우연은 오히려 리얼리즘의 플롯을 강화하는 요소였다. 이야기는 갖가지 사건과 인물의 우연과 변이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더 풍부해졌으며 현실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 우연히 마주친 등장인물들에 의해 벌어지는 우연한 사건들, 우연히 닥친 환경과 등장인물의 적응 과정에 대한 세밀한 심리 묘사는 전통적 서사와 다른 서사의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소설의 흐름에서 등장인물과 플롯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과학과 소설에서 플롯의 결정론적 구성은 언제나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그런 현상을 묵인하기보다 위반하려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이다 (비어 2008: 333). 등장인물은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 “다윈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맞이한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 (Levine 1988: 18-19). 작가들은 이야기 속의 사건에 개입하거나 일부러 사건을 만든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사건과 환경에 처한 등장인물의 적응 과정을 세심한 심리 묘사를 통해 보여주는 글쓰기를 확장해나갔다. 로망스와 신화적 요소는 여전히 문학 서사의 중요한 원천이었지만 새로운 서술의 틀 안에서 자기 모습을 감추면서도 유지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종결의 처리 방식이 흐트러진 점도 플롯의 변화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끊임없는 변화만이 있을 뿐 종결은 없는 자연계의 진화 과정처럼, 소설 작품에서도 작가들은 일부러 상투적인 대단원을 두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어색한 꾸밈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 같은 닫힌 플롯은 진화론의 리얼리즘에서는 더 이상 따라야 할 틀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19세기 시인들이 진화론의 관념을 자신의 작품 세계에 다채로운 문학적 상상력으로 투영했듯이, 진화론의 세례를 받은 소설작가들이 그려내는 작품도 저마다 다른 색깔을 띠었다. 자유의지와 도덕을 중시했던 인물로 알려진 엘리엇은 “획득형질의 유전이야말로 도덕개량적 낙관주의 근원”으로 이해하며 온건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점진적 사회개량주의를 작품에 투영한 작가로 평가받는데 비해, 결정론으로 진화론을 받아들인 하디는 불가항력의 자연법칙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허무주의 세계를 작품에 투영한 작가라는 평을 받았다 (양영수 2007). 이런 작가와 작품의 다양성은 진화론이 문학에 영향을 끼쳤지만 문학이 그저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갖가지 변형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색깔을 빚어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윈 진화론이 소설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다윈은 비글호 항해 기간에 밀턴의 작품을 챙겨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학이 다윈의 진화론 형성에 끼친 영향은 없었을까? 밀턴의 문학과 다윈의 『종의

기원』의 서사와 은유 체계를 비교 분석한 비어는 다윈 진화론의 과학 언어에는 다윈 시대에 널리 읽혔고 다윈이 즐겨 있었을 문학의 언어 흔적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비어 2008: 100-107). 『종의 기원』에 나타나는 시간, 변화, 사멸에 관한 다윈 식 사유와 언어의 뿌리에는 오랜 동안 문학과 신화를 통해 전수된 자연의 다양성과 풍부함이라는 은유와 서사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의 기원』이 다윈의 오랜 관찰과 경험적 증거의 수집이 만들어낸 과학 저작이지만, 복음주의가 지배한 당대 영국사회에서 종교 논쟁의 썩은 될수록 피하면서 자신의 진화이론을 입증하고 설득하고자 했던 지난한 은둔적 통찰과 숙고, 그리고 적절한 언어와 서사의 배려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이기도 했다.

사실 19세기 영국에서 과학과 문학은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나 올라리는 여전히 확연하지 않은 채 “문화적 조우(cultural encounter)”를 이루는 “열린 장(open fields)” 안에 있었다 (Beer 1996). 비어가 바라보는 조우는, “꼭 이해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공약 불가능한 것을 먼저(또는 유일하게) 강조하는 ...검토되지 않은 가정을 적극 행하는...” 그런 것이었으며, 결국에 지식과 언어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조우에서 지식과 언어의 교환, 대화, 경시, 즉흥 이해, 지식 방언, 텃세 등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다 (Beer 1996: 2). 그 조우의 열린 장은 불안정했기에, 문학에서는 오히려 “분별 있고 건전하며 유익한” 상상과 “기이하고 불건전하며 위험한” 상상을 구분하며 지성과 감성의 관계를 다시 모색하는 경우도 나타났고 (Ruskin 1846: 153), 과학인보다 절대적 객관성의 실재를 더욱 강하게 믿었던 인문주의자들의 태도도 나타났으며 (Benson 1981), 반면에 과학에서는 “들판의 국화는 식물학적 가치를 넘어서는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준다” “그 언어는 미학적인 능력을 고양하고 정교화 함으로써 과학의 작업을 보충한다”며 상상력과 감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Tyndall 1871: 103).

그렇지만 큰 틀에서 바라보자면, 그것은 다양한 집단이 전문직업화 (professionalization)의 시기를 거치며 언어라는 “거대한 틀(large institution)” 안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Beer 1996: 196), 각자의 문화적 울타리를

높이고 넓히는 과정이었음이 또한 분명했다. 그것은 비어가 19세기 후반 문학과 과학의 관계를 다루면서 강조했던 관점인 “번역(translation)보다는 변형(transformation)”의 관계였을 것이다 (Beer 1990). 그런 가운데에서 인간의 존재와 지위를 다루는 우연, 변이, 역사, 자연선택의 진화생물학은 문학에 “변형”을 끼친 여러 과학의 영향들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 근대 한국문학, 사회진화론의 계몽을 좇다

동아시아에서 진화론은 1870년대 일본에, 1890년대 중국에 처음 소개됐다. 조선에서도 19세기 말에 소수의 지식인들이 일본과 중국을 통해 진화론을 처음 접했다. 동아시아에 들어온 진화론은 각국의 사회적 상황과 지적 전통에 맞춰 각색되고 현지의 문화와 사상과 결합하며 변이를 낳으면서 자리를 잡았다 (윤홍로 1986). 그런데 다윈이 주창한 생물진화론보다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진화론은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이상적 사상이었던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에 기반을 두어 영국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1820-1903)가 체계화한 사상으로서, 다윈 진화론이 정식으로 발표된 1859년 이전에 먼저 제안돼 널리 퍼진 사상이었다. 스펜서는 적자생존의 개념을 생물유기체에 비유되는 사회유기체에 적용했다.

사회진화론은 본래 개인의 극단적 자유와 경쟁을 부각했으나, 이를 국가와 민족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실천의 근거가 됐다. 사회진화론은 제국에서는 인종 또는 민족 차별주의로 나아갔으며, 식민지에서는 민족의 생존 투쟁을 고취하는 민족주의와 결합했다 (박노자 2005). 일본에서는 제국적 사회진화론이, 중국과 조선에서는 민족적 사회진화론이 발전했다. 조선에서 사회진화론은 한편에서는 실력양성론과 민족자강론으로 변형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힘이 옳음”이라는 현실을 좇아 당위를 버리는 처세술과 현실 인식을 정당화했다. 생물진화론이 한낱 관념적 주장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라는 강한 권위를 갖춘 채 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진화론도 역시 인간 사회의 법칙이자 진리로서 받아들여졌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한테 진화론이 몰고온 충격의 정도는 춘원 이광수의 자서전으로 알려진 작품 『그의 자서전(自敍傳)』(1959)에 잘 나타나 있다. 이광수는 다윈 진화론이 가져다준 충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나는 따윈의 진화론이 마땅히 성경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켈의 『알 수 없는 우주』라는 책을 읽을 때에는 비로소 진리에 접한 것처럼 기뻐하였다.

“Struggle for life (살라는 싸움)”

“Survival of the best (잘난 자는 산다)”

이러한 진화론의 문구를 염불모양으로 외우고 술이나 취하면 목청껏 외쳤다.

이렇게 되매 내 도덕관념은 근거로부터 흔들렸다. 착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믿음 우에 섰던 도덕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선이 어디 있느냐 악은 어디 있느냐.

“Might is Right (힘이 옳음이다.)!”

마키아벨리, 트라추케의 정치론이 마음에 푹푹 들어갔다.

『힘이 옳음이다. 힘센 자만 살 권리가 있다. 힘센 자의 하는 일은 다 옳다!』

이러한 도덕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광수, 『그의 自敍傳』, 서울: 광영사, 1959 : 296-297)

“힘이 옳음” “잘난 자는 산다”는 식의 힘 숭배가 이 무렵 지식인들과 문학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동광(東光)》 제27호(1931)에 발표된 이광수의 시 『힘의 찬미』는 “힘! / 오늘의 미는 힘에 있다. / 분 바른 흰 것보다 / 별에 걸은 검은 것, 비단결 같은 살결보다 / 쇠뿔 같은 힘줄! / 암전을 집어치어라. 위엄이다, 역셈이다! / 사람이 오늘은 힘을 찾는다”라며 힘의 자연법칙을 찬양했다. 힘의 찬미는 강국과 약소국의 현실을 자연 법칙에 따른 자연 현상으로 바라보게



했으며, 민족독립의 ‘당위’에 앞서 민족개조론의 ‘현실’을 강조하는 사상의 바탕이 됐다.

문명 대 야만의 구도를 갖춘 계몽주의는 근대 문학의 즐거였으며 진화론, 특히 사회진화론은 그런 근대적 계몽사상의 샘플이었다. 계몽은 문학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문학의 언어를 지배하는 요소로 자리 잡아, 새로운 시의 형식이 계몽의 내용과 짝을 이루기도 했다. “터……르썩, 터……르썩, 터, 썩……아. / ㄸ ㄴ 린다, 부순다, 문허바린다, / 泰山갓흔 높은뫼, 답태갓흔 바위스돌 이나, / 요것어무어냐, 요계무어냐, / 나의큰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시나 디하면서, / ㄸ ㄴ 린다, 부순다, 문허바린다, / 터……르썩, 터……르썩, 터, 튜르릉, 콧.”으로 제1연이 시작되는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최남선, 1908)는 전통 창가의 형식을 파괴하고 근대 자유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파격을 선보였는데, 그 새로운 ‘형식’은 계몽의 지식과 사상이라는 새로운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상철 2005).

대부분의 개화기 소설들에서 문명 대 야만, 지식 대 무지, 규율 대 무절제 등의 이분법적 구도가 나타났다. 문명의 강대국을 향해 야만의 조선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거대 서사를 이루었다. 서구나 일본의 근대적 지식과 기술은 좇아야 할 문명이었으며, 조선이나 중국의 봉건적 상황과 미몽은 버려야 할 야만이었다. 장수익 (2006)은 그 작품 사례의 하나로서 최초의 신소설인 이인직의 『혈의 누』(1906)에서 “야만을 면치 못하면 살아서 쓸데 있느냐”, “이 같은 문명한 세상에 나서 나라에 유익하고 사회에 명예 있는 큰 사업을 하자 하는 목적으로 만리타국에 와서…” 같은 구절은 가끔 등장할 뿐이며 대부분의 줄거리가 생이별과 만남이라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도, 이 소설은 문명 대 야만이라는 이분법의 서사로 구성된 대표적 작품으로 흔히 꼽힐 만하다고 분석했다. 그것은 이런 몇몇 구절을 확대 해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체 구조가 이런 이분법에서 출발하고 거기로 귀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련이 청일전쟁의 외중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일본을 거쳐 미국까지

건너가 유학을 하면서 문명 세계에 눈을 뜨고 거기에서 조선을 계몽해야 하는 ‘지식인 선각자’의 사명을 느낀다는 줄거리는 약소국 민족 조선인의 생이별과 재회라는 줄거리에서 밀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낙관적 정치 계몽의 사상뿐 아니라 생존경쟁의 치열한 사회 모습에 눈을 뜨게 함으로써, 리얼리즘 소설의 바탕을 제공하기도 했다.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1924)에서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는 리얼리즘 작품에서 어떻게 중요한 모티프로 다뤄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장수익 2006).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 하는 가뜰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런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시글득시글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경쟁이 있고 자연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덜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의 낱알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가, 네나 내나 격꾸러지면 미구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에잇! 뉘져라! 움도 싹도 없이 스러져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버리든지 양단간에 끝장이 나고 보면 그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

(염상섭, 『20세기 한국소설 -염상섭』, 서울: 창비, 2005 :164)

어찌 보면 “살라는 싸움”이나 “생존경쟁이 있고 자연도태가 있”는 세상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고 동서고금의 문학작품들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와 소재들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진화론의 서사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시와 소설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줄거리를 이루고 그 작품에서 사회진화론이 작가와 등장인물, 그리고

독자의 마음을 이끄는 주요한 요소가 된 것은 개화기 이후 근대 소설들에 나타난 새로운 문학 현상이었다. 개화기를 거쳐 봉건전통과 철저히 단절해 근대화를 이루자는 이광수 식의 민족개조론 또는 자강론이나 약자의 깨우침을 주제로 한 김동인, 염상섭 식의 소설은 이런 진화론의 담론이 심층적 서사에 파고들어간 문학작품의 사례들로서 자주 분석되고 있다.

개화기부터 20세기 초 한국 근대문학에서 진화론은 문학의 모습을 바꾸어놓는 한 요인이 되었다. 서구 제국 안에서 점진적으로 내적 발전을 거듭해온 진화론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는 단기간에 서구에서 틀을 갖춘 진화론이 부분적으로 수입되었다. 이에 따라 진화 생물학 자체보다는 식민지 조선 사회의 상황에 걸맞은 몇몇 부분들이 윤색되면서 수용돼 때로는 제국열강들에서 민족독립을 성취해야 함을 강조하는 담론으로, 때로는 근대화를 위해선 제국열강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친일의 논리로 이용되기도 했다. 진화론, 특히 사회진화론은 개화기와 식민지적 상황에서 근대화 또는 민족 독립과 자강을 향한 계몽의 은유, 서사로서 문학 행위와 작품에 나타났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 진화심리학, 문학의 마음을 해부하다

다윈 진화론은 시와 소설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문학 행위 자체를 바라보는 큰 틀의 해석에도 새로운 비평의 도구를 제공했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진화문학비평은 역사 과정과 사회의 맥락에서 문학을 진화이론의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진화론의 틀을 사용해 문학 행위 자체나 개별 작품을 분석, 종합하고 비평할 수 있다며 그 이론의 틀을 제시해 왔다. 이런 문학비평의 기획이 가능한 것은 '왜 사람은 민담과 신화를 이야기하길 즐기고, 그런 이야기를 되풀이해 듣기를 좋아할까?'라는 진화심리학의 물음과 탐색에서 비롯했다. 마음과 정신도 생존과 번식을 위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해석하는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문학도 역시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는 마음과 정신의 발명품으로 풀이된다. 사랑, 질투, 이기심, 이타심, 공포, 슬픔 같은 감정도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했으며 지금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구조는 대체로 10만 년 전 쯤에 형성되었으며 이후에 크나큰 변화 없이 전해져 인간의 마음은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Sugiyama 2001).

장대익 (2009)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 능력을 진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여러 설명들에는 언어는 인간의 문화적 발명품이라는 주장, 큰 뇌의 부산물이라는 주장,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회에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된 적응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여러 가설들이 제기돼 왔다. 문화의 진화에 관한 설명에도 적응주의 이론, 부산물 이론, 이중 대물림 이론, 니치 구성론, 생각의 전염 모형, 밈(meme) 이론을 비롯해 여러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27-36).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이자 문화인 서사 활동을 진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여러 설명 가운데 하나의 유력한 가설에서 보면, 서사는 인간이 생존투쟁을 하고 자손을 기르는 시공간인 환경의 특징을 잘 포착하여 후세대가 쉽게 적응하도록 그 경험을 전수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이해된다. 먹거리 찾기, 약탈자 피하기, 능력 있는 배우자 선택하기, 동맹관계 맺기 같이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여러 도전 과제들에 적응하며 진화하는 인간은,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가상의 현실'을 이야기로 만들어 정보를 담고 전하는 서사와 문학의 예술 양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강하게 제시하는 학자는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꿈을 수 있는 서사의 장점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서사 과정에는 아무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소의 에너지가 소비될 뿐이다. 둘째, 서사는 시간을 압축하기 때문에 청중은 시간과 소모 에너지의 측면에서 들인 노력에 비해 직접 경험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셋째로 서사는 경험의 재현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 때 생길 수 있는 육체적 위험이나 사회적 위험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사는 지역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특정한 정보 요구에 부응해 쉽게 재단될 수 있다” (Sugiyama 2001: 238-239).

서사를 경험 정보의 전수 수단으로 바라보기보다 진화적 적응 행위 자체의 산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견해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마음을 “서사 기계(narrative machine)”라고 풀이했다. 그의 해석을 보면, “마음은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어떤 선택을 행할 때에 후성 규칙(예를 들어 뱀에 대한 공포처럼 인지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편향된 신경회로)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이끌리는 서사 기계”이며 “서사와 인공물은 가장 큰 내적 만족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을 때 널리 퍼지며 문화가 된다”(Gottschall & Wilson eds, 2005: ix, 인용문 중 괄호 안은 필자의 것). 상상의 인공물을 창조하고 소비하는 보편적 인간 기질이야말로 진화적 적응의 과정, 즉 마음의 적응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 두뇌는 어떤 결정적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변화무쌍한 환경 조건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며 적응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한다.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환경의 도전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마음이 창조해낸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게 이 견해의 주요 관점이다.

자연선택의 느린 속도 때문에 —새로운 유전자들이 낡은 것들을 대체하는 데에는 수만 세대가 걸린다— 인간의 유전은 고도의 지성이 열어 보인 새롭고 우연한 수많은 가능성들에 대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 . . 이런 간극을 메운 것이 예술이다. 초창기 인간들은 마술을 통해 환경의 풍요로움과 연대의 힘 그리고 생존과 번식에 가장 중요했던 여타 힘들을 표현하고 통제하고자 예술을 창안했다. 이런 힘들은 새롭게 모사된(simulated) 실재 속에서 의례화 되고 표현될 수 있는데 예술은 이를 위한 수단이었다. 예술은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감정의 안내를 받는 정신 발달의 후성 규칙들에 충실함으로써 일관성을 끌어냈다. 그것은 가장 호소력 있는 언어, 이미지, 리듬 등을 선택함으로써 그 규칙들을 따랐다 (윌슨 2005: 389-390).

이렇게 보면, 문학적 상상력은 ‘문학을 위한 문학’ ‘예술을 위한 예술’를 위해

인간 정신이 창조해낸 표상물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난 그 무엇이 된다. “예술은 감성적으로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의 모델이 된다. 그리고 인간 존재가 우연적 환경들에 유연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복합적 행동들을 조직화하는 것도 바로 이런 모델 안에서 이뤄진다” (Carroll 2004: xxii).

진화심리학과 진화문화비평의 눈으로 보면, 소설 작품은 전통적 문학비평이론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문학은 인간이라는 생물종이 진화 과정에서 얻은 마음을 반영하는 산물이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키워드는 소설 작가가 작품을 통해 빚어내는 의미와 독자가 작품을 읽으며 찾아내는 의미, 그리고 이 모두를 포괄하는 작품 전체의 의미 상황과 서사 구조를 해석할 때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런 기본의 기질과 종 특유의 규범들에 더해 문화적 규범들, 의미의 개별 구조들 사이의 관계가 분석된다. 번식은 인간 행동의 동기 체제에서 중심적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번식의 문제, 특히 배우자 선택과 가족 관계의 언저리에서 문학적 표상들의 틀이 짜인다.” 또한 러브 스토리이건 비극이건 작품의 주인공들은 사회생물학적인 규범적 기대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그들 문화의 규범적 가치들을 구현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작품에서 마침내 행복을 이루는 순간은 등장인물들이 처한 특정한 문화 질서와 인간의 원초적 경험 사이에서 이상적인 화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려진다 (Carroll 2004: 129, 134-145).

이처럼 진화문화비평은 변화하는 문학 행위 자체를 인간의 서사와 은유라는 진화 역사의 과정과 한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틀을 제공해주었다. 그것은 문학 비평을 통하여 인간과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고 그런 인간과 마음의 본성에서 출발하여 문학을 비평하고자 한다. 진화문화비평에서 문학 작품은 인간의 마음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자 했으며 작가와 독자는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써넣고 읽으려 했는지 보여주기에, 달리 말해 문학 작품은 살아 있는 유기체인 인간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오랜 생물 진화 과정에서 인간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왔는지 보여주는 화석과 같은 단서가 된다. 진화문화비평은 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비판적 성찰도 나오고 있다. 진화문화비평이 진화론 또는 진화심리학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데 머물지는 않는지 아니면 문학의 특성을 밝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진화론과 문학 사이에 놓인 열린 물음으로 남을 것이다 (김용현 2012).

## 맺음말

19세기를 거치며 시인의 지위는 세상을 통찰하는 예지자에서 시의 미학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거대한 자연에 선 외로운 독백자가 되어 갔고, 소설작가의 지위는 전지전능한 이야기꾼에서 복잡하고 우연하게 전개되는 플롯을 묘사하는 관찰자가 되는 일이 잦아졌다. 문학 전반에 다윈 진화론이 유일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해도, 또한 『종의 기원』이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해도, 문학은 다윈 진화론이 정통 종교 교리를 흔들으로써 바뀌놓은 현실 세계의 영향을 깊숙이 받으며 변화하고 있었다. 다윈이 시와 소설을 쓰진 않았지만, 시와 소설은 다윈이 바꾼 세상을 보며 달라졌다.

다윈 진화론이 시와 소설의 은유와 서사에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다면 그 영향력은 어디에서 비롯했을까? 과학 이론은 곧바로 문학에 침투하여 전이했을까? 다윈 진화론과 문학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그런 변화가 사회와 개인이 처한 상황과 종교적, 사회적 믿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조지 엘리엇이 유물론적 진화론을 경계하며 도덕의 진보를 소설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 보여주려 했다면, 토머스 하디는 진화론의 거대한 힘이 짓눌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분위기를 소설 속에서 감추지 않았다. 테니슨은 범신론에서 낭만적 자연신학과 가혹한 자연선택설의 조화를 찾으려 했으나, 스윈번은 오히려 진화론에서 인간 이성의 위대한 진보를 엿보려 했다. 또한 제국과 식민지사회와 유신론, 무신론, 범신론을 좇는 작가 개인들이 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여 어떤 용도로 쓰려 했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과 갈래로 문학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런 갖가지 변화들을 읽을 때에, 작품 안에 나타나는 서사와 은유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작가와 독자의 변화는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었다. 말하기의 주체인 시인과 소설작가들이 무엇을 얼마나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느냐 하는 권위와 지위가 바뀌면서 문학의 말하기 태도에, 문학 행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은 무엇보다 흥미로운 지점이다.

과학인(man of science)인 토머스 헉슬리와 문인(man of letters)인 매슈 아널드가 벌였던 강연 논쟁은 19세기 영국에 나타난 과학과 문학의 관계를 조망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례이다. 헉슬리는 1880년 강연("Literature and Culture")에서 고루한 고전 인문학 교육만이 아니라 자연과학(physical science)도 당대 교양/문화(culture)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전적인 인문 교육론자를 비판했다. 이에 아널드는 1882년 강연("Literature and Science")에서 뉴턴, 갈릴레오 같은 이의 과학 고전도 역시 문학(literature)에 포함되니 문학을 협애한 순수문학으로 몰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Otis ed. 2002: 4-8). 이런 19세기 후반은 과학과 문학이 각자 내부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며 둘 사이에 불안정한 조우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두 문화와 언어의 세계를 공유하며 구분하는 관계 재정립의 변화가 심했던 시기였다. 19세기 말을 지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과 문학은 각자 '말할 수 있는/없는 것'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더 벌리며, 또한 과학을 위한 과학과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자기 영역을 더욱 튼튼히 갖추며 점점 더 멀어졌다. 그러나 아주 멀어진 것은 아니었다. 20세기 후반에 진화문학비평이 과학과 문학의 경계에서 등장한 것처럼, 비록 뚜렷한 흐름은 아닐지라도 진화론과 문학 사이에서 은유, 서사, 마음은 여전히 도드라진 공통 관심사이며 그런 관심과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 \* \*

[감사의 글]

초고를 읽고 논평해 주신 홍성욱 교수(서울대 과학사회학)와 김명환 교수(서울대 영문학)께 감사드린다.



## 참 고 문 헌

- 김용현. 2012. "진화이론 기반의 문학연구에 관하여 -진화심리학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58집: 393-414.
- 박노자. 2005. 『우승열패의 신화: 사회진화론과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역사』. 서울: 한겨레신문사.
- 비어, 질리언. 2008. 『다윈의 플롯』. 남경태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Beer, Gillian. 2000. Darwin's Plot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박지향. 2006.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문화로 읽는 영국인의 자화상』. 서울: 기파랑.
- 양영수. 2007. 「근대 영국소설에 나타난 진화론적 자연관: 조지 엘리엇과 토마스 하아디 문학의 비교」. 『신영어영문학』 제37집: 109-133.
- 월슨, 에드워드. 2005. 『지식의 대통합: 통섭』, 최재천 장대익 옮김. 서울: 사이언스북스.
- 윤홍로. 1986. 「개화기 진화론과 문학사상」. 『동양학』 제16집: 67-103.
- 장대익. 2009. 「다윈 인문학과 인문학의 진화」. 『인문논총』 제61집: 3-47.
- 장수익. 2006. 「한국근대문학과 사회진화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9집: 273-308.
- 한상철. 2005.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근대시로의 전환」. 『어문연구』 제49집: 423-443.
- 화이트, 폴. 2006. 『토머스 헉슬리: 과학 지식인의 탄생』. 김기윤 옮김. 서울: 사이언스북스
- Beer, Gillian. 1990. "Translation or Transformation? The Relation of Literature and Science," *Notes and Record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44: 81-99. (*Open Fields: Science in Cultural Encounter* [1996]:

173-195에 재수록)

- \_\_\_\_\_. 1996. *Open Fields: Science in Cultural Encounter*. Oxford: Clarendon Press.
- Benson, Donald R. 1981. "Facts and Constructs: Victorian Humanists and Scientific Theorists on Scientific Knowledge." In James Paradis and Thomas Postlewait eds, *Victorian Science and Victorian Values: Literary Perspectives*.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Pp. 299-318.
- Bristow, Joseph ed. 1987. *The Victorian Poet: Poetics and Persona*. London: Croom Helm.
- Carroll, Joseph. 2004. *Literary Darwinism: Evolution, Human Nature, and Literature*. New York and London: Loutledge.
- Chapple, J.A.V. 1986. *Science and Literature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 Gottschall, Jonathan and David Sloan Wilson eds. 2005. *The Literary Animal: Evolution and the Nature of Narrative*. Evanston, Illinoi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Forsyth, R. A. 1964. "They Myth of Nature and the Victorian Compromise of the Imagination," *ELH* 31: 213-240.
- Irvine, William, 1959. "The Influence of Darwin on Literatur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03: 616-628.
- Levine, George. 1988. *Darwin and the Novelists*.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ckyer, Norman and Winifred L. Lockyer. 1910. *Tennyson as a Student and Poet of Nature*. London: MacMillan.
- Otis, Laura ed. 2002. *Literature and Scie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An Ant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uskin, John. 1846. *Modern Painters II*.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Ltd.
- Sugiyama, Michelle Scalise. 2001. "Narrative Theory and Function: Why Evolution Matters". *Philosophy and Literature* 25: 233–250.
- Stevenson, Lionel. 1932. *Darwin among the Poe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ennyson, Hallam ed. 1911. *Tennyson and His Friends*. London: MacMillan.
- Tyndall, John. 1871. *Fragments of Science for Unscientific People* [5th ed.]. London: Longmans, Green.

논문 투고일	2014년 10월 17일
논문 수정일	2014년 12월 15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14년 12월 23일

## **Evolutionism and Literature: Rediscovery of Metaphor, Narrative, and Mind**

Oh, Cheol-Woo

The influences of sciences on literature have been much researched as relatively familiar themes, and especially the impact of Darwin's evolutionary theory has been interesting research themes on 19th-century history and "Two Cultures". This article outlines the impact of Darwin's evolutionary theory on literatures of the 19th-century British and enlightening-and-colonial-era Korea focusing on some significant features of literary changes, with help of existing researches. It will also give a brief overview of evolutionary psychology as a new perspective of literary criticism. In particular, it will try to show that many transformations of poems and novels appeared diversely depending on different circumstances and various religious or social beliefs societies and individuals were facing and having, and that new understanding of metaphor, narrative, and mind through rediscovery of nature, human and evolution underlay the big changes of literatures.

Key Terms: darwinism, evolutionary theory, science and literature,  
metaphor, narrative, mind, evolutionary psychology